세대론의 르네상스와 ‘디지털 원주민 세대’의 이해

박치완*

국문초록

최근 들어 어느 사회, 어느 국가나 할 것 없이 세대들 간의 갈등이나 세대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게다가 지구촌의 대부분의 국가가 ‘노령화 사회(ageing society)’로 접어들면서 노인층의 빈곤 문제 또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데, 이 또한 세대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사회의 공공복지 문제, 교육의 문제도 세대와 연관성이 깊다. 이렇게 보면 세대의 문제는 K. 만하임이 강조했던 것처럼 ‘사회적 변화(social change)’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필수적 요소로 간주해야 하며, 특정 국가에만 해당하는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세대 연구가 오늘날 ‘르네상스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이 때문인지 모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대’에 대한 이러한 관심의 증대와 연구 범위의 확장은 2000년을 전후해 출생한 Z세대(C세대라고도 함)가 사회의 중심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들 디지털 원주민 세대(digital natives)는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정치적 의식도 직업관도 기성세대[Traditionalists, Baby Boomers, Gen Xers, Gen Yers (Millennials)]와 현격히 다르다. 본고에서 우리는 바로 이들 신세대의 특징을 비교세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어떻게 작금의 배타적 세대주의(exclusive generationalism)를 극복하고 상호세대적 관계(intergenerational relation)를 정초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세대론, 디지털 원주민 세대, 세대주의, 상호세대적 관계, 칼 만하임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Dept. of Global Culture Contents)

접수일(2019년 7월 24일), 게재 확정일(2019년 8월 6일)

"[다음 세대를 어떻게 지칭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아직 모른다. (…) 아마 언젠가 그 명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상상적 추측에 의해 찾으려는 태도를 분명하게 거부해야만 한다." – K. Mannheim.

"활동적인 글로벌 세대(active global generations)의 영향력을 인지하지 못하면 세계화를 완전하게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제2의 글로벌 세대(the second global generation)인 인터넷 세대의 형성을 목격하고 있다. 인터넷 세대는 국경을 넘어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세계적인 영향력(global impact)을 행사하고 있다." – J. Edmunds & B. S. Turner, 2005: 572.

I. '세대'에 대한 연구 동향과 Z세대 연구의 필요성

우리가 세대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은 '세대'가 한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매개자(medium)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세대 연구가 오랫동안 사회학의 주요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대 연구가 사회학의 중심 주제라거나 사회학의 전유물이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 세대 연구는 오늘날 사회학적 접근 이외에도 정치공학적 접근, 대중문화적 접근, 교육학적 접근, 조직행동론적 접근, 마케팅과 경영학적 접근, 소비사회론적 접근, 인류학적 접근 등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실제 사회학적 접근 내에서만 보더라도 K. 만하임의 「세대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유럽에서 1950–60년대 이후 끊이지 않고 있다.[1] 최근 들어 심지어는 "'세대'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툼이 있는

1) A. B. Fields, C. Weill, "Aper us du problème des générations: Mentré, Ortega et Mannheim", *L'Homme et la société*, No. 111–112, 1994, p.7. 이하 참조. 만하임이 1928년에 집필한 「세대 문제(The Problem of Generations)」라는 글은 프랑스의 경우 195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번역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며 영어권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1952; Ideology

개념(a contested concept)'"[2]이라는 의견까지 제시돼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세대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학문적으로 다양하고 세대 개념에 대해 설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세대 연구가 시효(時效)를 다한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세대' 개념이 더 이상 쓰임새가 없는 구격(舊格)의 것이라 치부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 생각된다. 디지털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젊은 세대(YZ세대)가 보여주는 전례 없는 행동과 태도는 '(신)세대 현상'일 뿐이라는 피상적 진단만으로는 그 설명이 충분한 것 같지 않다. 이들에 대한 관심이 인문·사회과학자의 시각에까지 포착되는 것은 이런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다.

오늘날 세대 문제의 핵심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들 YZ세대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일까. 세대 연구는 일종의 '시대적 요청'으로 또는 '필요불가결성'과 맞물려 최근 들어 어느 사회, 어느 국가나 할 것 없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대들 간의 갈등이나 세대 격차 해소 문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노인층 빈곤 문제, 포괄적 의미의 사회복지 문제 그리고 가족 개념을 기반으로 한 상호세대적 관계의 모색 등, 이 모든 것들이 세대의 문제의 중심을 가로지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래에 이르러 이렇듯 세대 연구는 사회학의 영역 범위를 이미 벗어나 있으며,[3] 접근법도 지향점도 다각화되고 있다. 이는

---

and utopia.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1952. 이렇게 영어권, 프랑스어권에 만하임 수용이 지체된 것은 마르크시즘, 이데올로기, 계급, 노동, 사회 인식, 사회 변화에 대한 견해차 때문일 것이라 추측된다 - M. Löwy et N. Perivolaropoulou, "Notes sur la réception de Mannheim en France", *L'Homme et la société*, No. 140-141, 2001, pp.103-111 참조. 국내에도 1959년 정종식에 의해 「만하임의 대중사회론」(『관훈저널』 제1호, 1959, 78-84쪽.)이 1950년대 말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연구사적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2) S. Purhonen, "Generations on paper: Bourdieu and the critique of 'generationalism'", *Social Science Information*, Vol. 55(1), 2016, pp.109. 이에 대한 보다 직접적 언급은(물론 국내의 연구상황과 유관(有關)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전상진,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한국사회학』 제36집, 2004. 참조.

역설적으로 세대 연구가, 비록 만하임의 분석틀과 이념을 곧 대로 따르지는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현대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 유용하고 필요한 사회분석 도구라는 것을 방증한다. 세대의 문제에 대한 이러한 관심의 증대와 연구 범위의 확장, 접근법 및 지향점의 다각화에 근거해서 재평가하건대, 세대 연구는 감히 표현해 '르네상스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4)]

세대론은 기본적으로 다학문적 접근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동일 세대 내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층위적 접근과 해석이 필요하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세대 연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전통의 환원적 접근법에서 문맥적 연구로 그 태도를 전환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지 모른다. 이렇듯 세대 연구의 관점과 태도가 일신되고 그 범위가 확장된 결과로 '세대 연구의 시대'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것 아니겠는가.[5)] 이는 한마디로 우리가 세대의 문제가 이슈인 시대를 살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필자가 "세대라는 '이슈'"를 2000년(∓5)을 전후로 해서 탄생한 소위 '디지털 원주민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6)] 아래에서 우리는 이들 신세대의 주요 특징을 비교세

---

3) 세대에 대한 여러 접근법 중 특히 사회학적 접근에서는 주지하듯 사회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generations)의 이해관계를 성찰하면서 어떻게 사회 변화의 동력학(dynamics)이 작동되는가를 살핀다.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을 만하임의 용어로 대체시키면 곧 '세대들'이 된다. 만하임은 바로 이 '세대들'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이 사회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이며, 사회 변화, 역사의 과정은 세대들의 계승(succession)으로 구조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그가 「세대 문제」라는 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라 할 수 있다 – C. Attias-Donfut, "La notion de génération: Usages sociaux et concept sociologique", *L'Homme et la société*, N. 90, 1988, pp.40-41. 참조.

4) 유용성과 필요에 의해 오늘날 세대론이 재고(再考)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D. F. Alwin & R. J. McCammon, "Rethinking Generations",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4(3-4), 2007. 참조.

5) M. Corsten, "The Time of Generations", *Time & Society*, Vol. 8, No. 2, 1999, pp.267-268. 참조. 물론 아래 표에서 보듯, 세대 연구는 국가마다 시기를 달리하고 있기도 한데, 이는 국가마다 사회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디지털 원주민 세대', 즉 Z(C)세대에 이르면, 국가별 편차가 사라지고 있다.

대적 관점에서 살펴볼 계획이며, 이들 세대의 도드라진 특징을 비판적으로 규명하면서 어떻게 작금의 배타적 세대주의(exclusive generation-alism)를 극복하고 상호세대적 관계(intergenerational relation)의 정초할 수 있을지를 결론으로 제시해볼까 한다.

II. '디지털 원주민'인 C세대: 그 기원과 비교세대적 특징

"왜 C세대인가?" 주지하듯, 'C세대'는 Z세대의 다른 이름으로 이들 세대의 세계관, 가치관, 행동양태, 소비형태의 특수함에 주목해 글로벌 마케팅 분야에서 새롭게 붙여진 세대 명칭이다. 기존의 세대(즉 베이비부머세대, X세대, Y세대)에서와 달리 이들 디지털 원주민 세대는 문자 그대로 '글로벌 세대'이자 '유튜브 세대'이며 '스마트 소비자 세대'라는 특징을 보인다. 〈표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들 C세대는 베이비부머세대, X세대, Y세대처럼 연령코호트 면에서 볼 때 국가별 편차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일차적으로 눈에 띄는 점이다.[7]

〈표 1〉 각국의 세대 구분-출생연대의 차이
(출처: C. Codrington & S. Grant-Marshall, *Mind the gap*, Cape Town: Penguin, 2006: 19)

Generation	South Africa	USA	Europe/UK	Japan
The Traditionalists	1930-1949	1923-1942	1918-1945	1925-1945
The Baby Boomers	1950-1969	1943-1962	1946-1965	1945-1965
Generation X	1970-1989	1963-1983	1966-1984	1966-1985
Generation Y	1990-2000	1984-2001	1985-2001	1986-2001
Generation Z: born between 2001-2020				

6) C(Z)세대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성격의 연구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결과 창의의 아이콘, C제너레이션』(n·content, Vol. 2 특집호), 2017; 동아비즈니스리뷰, "Gen Z", 『DBR』, No. 269, Issue 2, 2019 참조.

7) 대부분의 사회학적 연구에서 세대 문제를 연령코호트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 세대의 역할이 예전처럼 한 국가 내에서의 변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경을 초월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C(Z)세대에 이르러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이다 - J. Edmunds & B. S. Turner, "Global generations: social change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British Journal of*

C세대는 시기적으로는 2000년대를 전후해 태어난 세대로, 연령은 학자나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20대 초반에서 중후반까지를 통칭한다. C세대가 글로벌 세대로 통칭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디지털기기 사용의 일상화가 큰 몫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00년을 전후해 구글이 등장하며서 디지털기술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내는데 성공했다. 맥루한의 '지구촌(global village)'이란 개념이 디지털기술에 힘입어 마침내 그 이름과 실상이 부합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8)]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구촌 시대'로 접어들면서, 더 정확히는 신자유주의가 지구촌의 '절대이념'이 되면서 세대 갈등(generational conflicts), 세대 격차(generational gaps)의 문제는 단지 로컬국가의 차원에서만 제기되는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차원에서 '핫 이슈'로 부상하게 된다. 로컬-글로벌 차원에서 세대 갈등, 세대 격차, 세대 간의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이렇게 화두로 부상했다는 것은 각 세대의 핵심 가치(세계관, 가치관, 직업관 등)가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구촌 차원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다.

Sociology, 56(4), 2005, p.560. 본고에서 우리는 부득이 'C세대'와 'Z세대'를 혼용하게 되는데, Z세대가 연령코호트에 기반한 분류라면 C세대는 요즘 신세대의 행동양태, 가치관, 소비패턴 등에 초점을 두고 Z세대를 재명(再名)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쇼셜미디어 사용자', 즉 '디지털 원주민 세대'를 총칭해서(즉 YZ세대) C세대라고 하는 학자도 있으며, C세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특칭(特稱)하는 학자도 있다: 〈Community, Connected socially and electronically, Creative, Controling, Complexity〉. 뿐만 아니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도 C세대를 다음과 같이 5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디지털 원주민, 콘텐츠, 큐레이션, 소셜 커뮤니티, 창의성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결과 창의의 아이콘, C제너레이션』(n·content, Vol. 2 특집호), 2017, 10-13쪽 참조. 그밖에도 C세대의 C를 소비자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Content, Creation, Connections, Choice〉라고 설명한 경우도 있다 - M. Hardey, "Generation C: Content, Creation, Connections and Choic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 Research*, 53(6). 2011, pp.749-770 참조. 이는 결국 'C세대'를 연구 관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본고에서도 물론 C세대, Z세대를 문맥을 고려해 혼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C세대를 사용할 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령효과보다는 코호트효과에 기준을 둔 것 때문에 YZ세대를 통칭할 경우도 있으며,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경우는 간혹 'Z(C)세대' 또는 'C(Z)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도 있다.

8) 마샬 맥루한, 브루스 R 파워스, 『지구촌』, 박기순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참조.

〈그림 1〉 경제 불황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좌절한 Y세대
출처: Cl mence Boyer, “Pourquoi la Génération Y est malheureuse au travail”, 2017. 6. 1., https://start.lesechos.fr/emploi-stages/management/

이렇게 세대의 문제가 지구촌 차원에서 새롭게 화두로 부상한 것은 경제적 불평등이 어느 국가나 할 것 없이 구조화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기에 태어나 꿈의 세대로 불리는 베이버부머세대, X세대가 있는가 하면[9] 경제적 불황 및 경제위기 시대에 태어나 ‘실업대란’, ‘고용위기’, ‘청년실업’이 일상어가 된 Y세대, Z세대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들 Y세대나 Z세대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경제적 환경이 박행(薄幸)한 그런 ‘시대의 자식들’이라 할 수 있다.[10]

물론 각 국가의 사정이나 형편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세대 문제의 원인, 해법은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세대 갈등, 세대 격차, 세대 간의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는 어느 국가 할 것 없이 공히 초미의 관심사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

9) H. Hamon, R. Rottman, *G n ration. Les Ann es de R ve*, Seuil, 1984 참조.

10) A. Malafeev, “Pourquoi la Génération Y est insatisfaite et malheureuse?”, 2018. 11. 13., https://www.newpointdeview.com/mag/view/.

런데 왜 이 과정에서 비판의 화살은 기성세대(특히 베이비부머세대 및 X세대)에게로 집중되는 것일까?[11] 모든 사회적 문제의 책임이 전적으로 베이비부머세대나 X세대와 같은 기성세대에게만 있다고 불평하는 것인가? 해법은 상호세대적 학습을 통해 상대 세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들에 대해 즉답을 내리기에 앞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문제의 발단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i) 각 세대의 기원과 특징이 어떻게 다른가? ii) 그리고 특히 C(Z)세대의 비교세대적 차이는 무엇인가? 본장에서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나름의 해답을 제시한 후 어떻게 XYZ세대 간에 내재된 세대주의(generalism)를 극복하고, 그 책임을 모든 세대가 서로 분담하면서 '공존의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지를 결론에서 제시하게 될 것이다.[12]

1. 세대 연구는 각 세대의 기원과 특징에 대한 선이해가 필수적이다

"각 세대의 운명은 시대가 결정한다"고 말하면 지나친 단정(斷定)일까?[13] 하지만 지나온 인류의 역사를 단기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는 우리가 한 사회, 한 국가를 성찰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단층'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후세대, 베이비부머세대는 산업화의 시기를 맞이해 경제가 날로 성장하

---

11) 김정훈, 심나리, 김항기, 『386 세대유감』, 웅진지식하우스, 2019 참조. 이 책에서 저자들은 공공연하게 386세대(X세대)에게 유감을 표하며,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12) 관련 연구로는 R. Sikora and B. Barry(eds.), *Obligations to Future Generations*, Temple University Press, 1978. 참조.

13) 태어나면서부터 세대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주장은 L. Chauvel, *Le destin des generations*, PUF, 2010[1998] 참조.

〈표 2〉 전 세계의 세대별 문화 차이에 대한 요략(要略)

	전통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X세대	Y세대	Z세대(C세대)
연령대/ 출생년도	74-97세 (1922-1945)	55-73세 (1946-1964)	39-54세 (1965-1980)	19-38세 (1981-2000)	18세 이하 (2001- 2013)
세대 약칭 및 주요 사건	-침묵의 세대(Silent Gen.) -실천·재건·적응의 세대 2차 세계대전	-낙관적·이상주의적 세대 -베트남 전쟁 히피문화 등장 -TV의 등장	-재도약의 세대 회의적 세대 PC 세대 초기 디지털 이민자	-새천년 희망 세대 -최초의 글로벌세대 SNS 세대 -디지털 노마드 세계화(소련 해체)	-풍요/소비 세대 -유튜브 세대 -6-8초 세대 -참된 글로벌 세대 -세계금융위기 경험
세대 가치	-전통가치 존중 -조직과 조화 가부장적 경향	-전통, 권위에 대한 의문 -조직 지향 -개혁·공정성	-문화다양성 수용 -사회적 평등 시민권(흑인, 여성 등) 대두	-관용 정신 -목표 지향적 -변화 선호	-공유보다 창조 -현재보다 미래 가족보다 SNS 친구
직업 윤리, 개인 가치	-가족을 위해 자기 희생 개인보다 직장 우선 -애사심, 애국심	-물질적·사회적 성공 추구 -자유로운 의사 표현 -개인의 자율성 중시	-자격증보다 능력 중시 -노동-가족-삶의 균형 추구 자기 신뢰	-물질적 가치 중시 -경제적 자유 추구 -노동-가족-여가의 균형 유지	-익명성 선호 -필요한 정보는 스스로 학습 개인 창업 선호 주어진 업무에만 집중
소통 방식	-격식에 맞는 메모장 사용	-인편으로 전달	-직접 전달	-E-mail이나 음성 메시지	-SNS를 통한 비주얼 이미지
리더십	-Hierarchy -Commander	-Consensus -Thinker	-Competence -Doer	-Pulling together -Supporter	-Collaboration -Do-gooder

던 시대에 청년기를 보냈다. 때문에 이들 세대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수월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개인과 가족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호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X세대는 전후세대, 베이비부머세대에 비해 사회적 지위, 경제적 수입, 소비의 기회 등을 그들 부모세대와 똑같이 누릴 수 없는 시대적 환경에서 성장했다. 이들 X세대는 미소냉전 시기에 청년기, 중년기를 보내면서 이데올로기적 갈등도 심하게 겪어야 했으며, 오일쇼크 등으로 세계경제가 출렁이던 시대를 몸소 체험해야 했다. 또한 베트남 전쟁 등 정치적으로도 이데올로기의 충돌을 경험해야 했다.

이상과 같은 단적인 설명을 통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듯, 각 세대는 자신들의 고유한 세대 경험(주로 역사적·정치적 사건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만)을 통해 전후(前後)의 세대와 구분되는 세대의식, 세대문화를 형성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사회적 조건이 한 개인의 실존적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바로 이것이 만하임이 『세대 문제』에서 언급한 '세대위치' 개념의 핵심이다.

세대위치란 지리적으로 제한된 공간 내에서 특정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같은 세대(세계) 경험을 공유했을 때 결정된다. 역사적으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연령대에 출생한 관계로 가족관, 노동문화, 사회정치적 의식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도 바로 이 세대위치가 같기 때문에 공유되는 것이며, 각 세대가 공유한 이와 같은 집단의식의 표출은 세대의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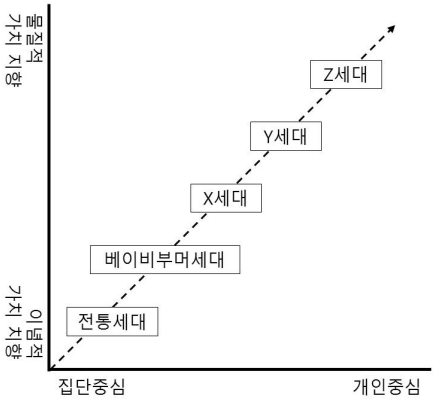
우리가 세대를 구분하고 또 그 성격 및 특징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도 어떤 형태로건 세대 간의 차이가 드러나고 목도되기 때문이며, 이를 전제로 우리는 전통세대부터 Z세대까지 각 세대의 기본적 특징을 위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14] 〈표 2〉에서 중요한 것은 20세기 초에서 21세기 초에 걸쳐 근 100여 년간 세대별 의식과 문화 차이가 어떻게 전개되

---

14) 〈표 2〉는 필자가 「문화콘텐츠기획과 세대론」(『인문콘텐츠』 제53호, 2019, 29쪽.)에서 제시한 것을 간소화한 것이다. 물론 〈표 2〉는 세대의 문제를 단순화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본 연구의 필요에 의해 작성된 이 표는 단지 세대 간의 차이를 대별(大別)하는데 의미가 있을 뿐 각 세대 뒤에는 우리가 표에서 적시(摘示)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고 있는가를 일별하는데 있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사회)이 기준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세대 구분과 외부 영향 요인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일반적으로 각 세대는 그 기점, 즉 뿌리가 다를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다. 아래 〈그림 2〉에서도 재삼 확인할 수 있듯, 세대가 전통세대에서 Z세대로 계승될수록 집단/공동체/사회보다 개인화 과정(individualization prosess)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그림 2〉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개인화 과정과 비례하여 세대 개념의 핵심이라 할 집단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ies)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집단적 정체성이 이렇게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M. 코스튼의 설명대로라면 '가치-이념의 종언', '역사의 종언'을 의미한다.[15] 그리고 이는 "오래된 집단적 정체성이 사라지고 새로운 대안적 정체성이 등장"[16]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2〉 세대별 성향과 가치관의 차이

15) 이상의 설명은 Michael Corsten, *op. cit.*, p.249. 참조.

16) *Ibid.*

Z세대의 출현과 괘를 같이해 "새로운 대안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결국 세대의 의미를 오늘날의 변화된 시대의 관점에서 재고하고, 코호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요구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Z세대의 특성과 연령코호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요구된다는 것은 그동안 세대 연구에서 당연시했던 각 세대가 갖는 '표준화된 삶의 행로(life courses)'가 한 집단(또는 그룹, 즉 단위 세대)을 기준으로 평가했던 것에서 이제는 개인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현미경이 필요하다는 주문이기도 하다.

주지하듯, 오늘날 사회의 변화는 예전처럼 특별한 역사적 사건(전쟁, 혁명 등)에 기반을 둔 세대의식의 실천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세대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다시 말해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SNS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다. P. 부르디외의 전문용어로 표현하자면, 디지털 시대인 21세기는 '사회적 공간(the socisl space)'이 이전 세기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17] 더 정확히 말하면, 사회적 공간이 '물리적-사회적 공간'에서 '가상적-사회적 공간', 즉 디지털 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그렇다. 오늘날 〈Connection, Community〉로 특징되는 C세대는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좋아요'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사회적 연대'를 형성한다. SNS, SMS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대한 것인지는 이 자리에서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으리라. 만하임이 강조했던 것처럼 역사적 과정과 사회적 의식이 공동체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단지 SNS, SMS 등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사회의 변화를 초래하는 그런 "'불가해한'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

17) P. Bourdieu, "The social Space and the Genesis of Groups", *Theory and Society*, Vol. 14, No. 6, 1985, pp.723-744. 참조. 물론 부르디외에게 있어 '사회적 공간'은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절대적으로, 단극적으로'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라이프니츠가 말했던 "모든 관점의 평면(the plane of all perspectives)"에서처럼 "모든 사회적 동인들의 관점(perspective on all social agents)"을 포용하는 장(field)이 곧 '사회적 공간'이고, 이러한 '사회적 세계(the social world)'는 사회적 동인들에 의해 그것이 창조된다는 데 핵심이 있다(*ibid.*, p.732, 734. 참조).

최근 들어 세대 연구가 나이를 중심으로 개인의 생애와 개인사를 설명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도 결국 이제는 나이가 사회적 차이화(social differentiation)의 표지로, 다시 말해 사회적 갈등, 세대 격차의 문제를 이해하는 요체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결국 SNS, SMS에 능통하며 정보를 창의적으로 가공하고 자신만의 플랫폼을 만들어 자신을 전시(self-curation)하는 것이 일상이 된 C세대의 심리를 60-70대(50대 중반~70대 초반)의 심리로는 감히 접근·이해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게다가 오늘날 지구촌의 대부분의 국가는 점점 노령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21세기에 이르러 세대 갈등은 만하임의 세대론에서처럼 집단적 세대 격차에서 그 원인을 찾기보다 나이가 기준이 된 개인차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코스튼이 "새로운 대안적 정체성"을 언급한 것은 결국 한 세대를 단일화할 수 있는 요소(unifying factors)를 통해 정의하고, 세대들 간의 격차를 이 집단적 이해를 통해 설명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각 개별자에게서 사회화 과정이 진행되었는가를 세찰(細察)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문이다. 코스튼이 이렇게 만하임의 세대론의 개정(改正)을 요구하게 된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그의 다음 세 가지 질문이 작동한 결과라 할 수 있다: i) 어떻게 세대를 선형적 시간 안에 제한할 수 있는가? 어떤 특수한 세대에 속하는 집단이 있다고 할 때, 왜 어떤 사람은 그 세대 구분에 있어 앞 시기에 속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세대 구분에 있어 뒷 시기에 속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는 공평한 것인가? ii) 무엇이 세대들 간의 관계의 타당성이며, 같은 세대에 있어 특별한 집단 간의 관계인가? iii) 어떻게 오늘날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세대의 집단적 노령화(특히 전통세대, 베이비부머세대)의 현상을 설명할 것인가?[18]

이 자리에서 우리가 코스튼의 질문과 대답을 상세히 언급할 공간은 없다. 하지만 그의 문제제기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는 세대의 문제를 만하임

18) *Ibid.*, p.251.

처럼 "역사적 유물론(historocal materialism)", "단일원인론(mono-causal theory)"[19]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에드먼즈와 터너의 이와 같은 만하임 비판을 코스튼의 주장과 결합시키면, 역사적 유물론과 단일원인론으로 세대를 설명한 만하임의 세대론은 개인을 집단의 세대 범주 안에 가둘 뿐만 아니라 세대의 정체성이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논리에 기초한 것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부르디외가 "어떻게 한 세대가 사회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행동하는가?"라는 또 다른 질문을 제기하며 만하임의 세대론을 수정·보완하고 나선 것도 에드먼즈와 터너의 만하임 비판과 맥락이 닿는다.[20]

부르디외에게 있어 사회의 변화 과정은 반드시 세대투쟁(generational struggle)을 동반한다. 그 때문에 '수동적 코호트(a passive cohort)'에 의한 단순한 세대 이동보다는 정치적으로 '적극적이고 자의식적인 코호트(active and self-conscious cohort)'가 형성돼 문화적·지적·정치적 국면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세대 이해의 관건이라고 부르디외는 강조하며, 대표적 예로 베트남 전쟁을 전후로 세대의식을 적극 표출한 1960년대의 세대를 든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1960년대의 세대는 전 지구촌으로 확산된 정치적 행동을 공유하며 그들의 세대의식을 지역별로 공고히 한 사례이다.[21] 물론 한 세대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결정하는 요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것은 같은 연령대 내에서도 세대의식에 있어 편차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19) J. Edmunds & B. S. Turner, *op. cit.*, p.560.

20) 관련된 논의는 P. Bourdieu, "'Youth' Is Just a Word", *Sociology in Question*, London: Sage, 1990;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Essays on Art and Literature*, Cambridge: Polity Press, 1993. 참조.

21) 이상의 설명은 J. Edmunds & B. S. Turner, *op. cit.*, p.562 참조. '전후(戰後)세대'의 집단적 사회운동(미국에서의 반전·반핵운동, 남아공에서의 반아파르트헤이트운동, 프랑스에서의 68혁명 등)을 대표적인 '적극적이고 자의식적인 코호트'라 할 수 있다. 후속 세대에서는 불행히도 이와 유사한 대대적인 집단저항운동이 발견되지 않는다. 같은 시기에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러시아, 중국의 새로운 세대들은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의 폭력에 눌려 오히려 '수동적 코호트'로 변모했다(*ibid.*, p.563.).

한다. 또한 세대의식의 편차는 같은 연령대라 할지라도 서로 공감하기 어려운 '문화세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결정론적으로' 세대를 구분하고 범주화화기보다 각 세대 내에 잠재된 서로 다른 문화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바로 그 때 우리는 비로소 세대의 문제를 망원경적으로 일별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미경적으로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했듯, 각국의 세대 문제는 각 국가에서 시대의 전개가 어떤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과정을 거쳐 구조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세대 문제가 대한민국의 세대 문제나 일본의 세대 문제와 뿌리가 같을 수 없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세대 문제가 동유럽의 세대 문제와 해법이 같을 수 없다.

이렇듯 세대 문제는 오늘날 비록 글로벌 차원의 화제(話題)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차적으로는 "국가적 문맥(national context)"[22] 내에서 먼저 그 내부를 현미경적으로 성찰하고,

---

22) *Ibid.*, p.564. 세대 문제를 국가적 문맥에서 설명한 학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는 이미 1920년에 F. 망트레가 시도한 적이 있다 - F. Mentré, *Les Générations sociales*, Paris: Bossard, 1920, p.450. 이하 참조. 그는 이 책을 프랑스 역사에서 세대를 추적하려는 시도에 바쳤는데, 그에게 "역사의 원동력은 곧 국가 정신(l'esprit national)이며, 그 과정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옮겨 갈 수 있다." - A. B. Fields & C. Weill, *op. cit.*, p.9. 필자의 판단에 따르면, 세대 문제는, 이미 서론에서부터 언급했듯, 글로벌 차원의 화제(話題)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글로벌 차원의 화제라는 것이 글로벌 차원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리와 연결되지는 않는다. 필자가 본문에서 강조한 '국가적 문맥'을 국가주의(nationalism)로 오인하지 않았으면 한다. 세대 연구에 있어 '국가적 문맥'이 중요한 것은 국가마다 겪었던 역사적 사건(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사태, 예멘분쟁, 최근의 미·중 무역 분쟁에 이르기까지)이 다르고, 그 차이로 인해 세대 문제의 원인, 세대 갈등의 원인이 다를 수 있고, 바로 이 차이를 해당 국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자가 '국가적 문맥'에 굳이 방점을 찍은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세대'인 C세대라 해서 기본적으로 '국가'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세대 연구에 있어 '국가적 문맥'이 기본이 되어야만 '글로벌(국제적) 문맥'은 물론이고 미국 내의 스페인 및 아프리카 이민자 문제, 아프리카나 캐나다 내의 중국인 문제, 일본 내의 조선·한국인인 문제, 한국 내의 조선족·고려인 동포 문제와 같은 '하위국가적 문맥(infranational)'을 고려·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주어진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강조해 두고자 한다.

세대갈등과 세대격차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긴요하다 하겠다.

2. C(Z)세대의 비교세대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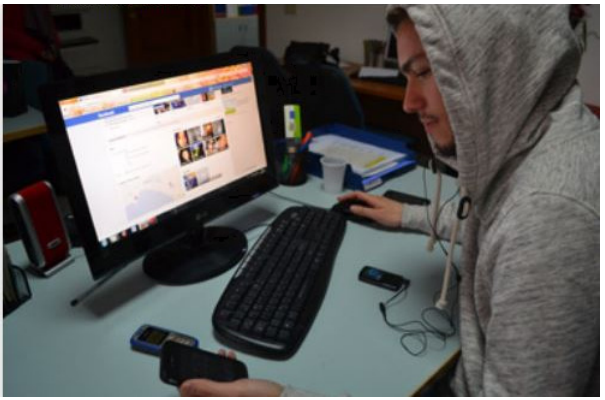
세대론은 앞서 S. 퍼호넨을 인용해 언급한 바 있듯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대를 '선형적 진화'로는 쉽게 접근·설명되지 않은 새로운 세대가 출현했으니, 그들이 이름하여 21세기의 중심 세대로 그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는 'C세대'이다. C세대의 등장과 괘를 같이 해 기존의 세대론도 전격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심지어는 이들 유연하고 스마트하며 이동성이 높은 세대를 이론적으로 범주화하고 체계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태이다. 앞서 우리는 C세대를 기존의 세대론에서처럼 집단적 정체성보다 개인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부르디외의 용어를 차용해 부언하면, 오늘날 사회의 변화는 이들 C세대의 '세대투쟁'을 통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확장에 따른 '의도되지 않은 변화'를 비자발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전통세대나 베이비부머세대처럼 전쟁이나 역사적 사건, 이념적 충격이 이들 세대의 위치(generation as location)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들 세대가 세대론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다.

C세대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건에 의해 세대의식을 공유하거나 세대위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함께 성장한(발전한) 디지털 환경이 세대의식과 세대위치를 형성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들 C(Z)세대에게 "구글과 함께 탄생한 세대"(1998)[23]라는 별칭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이 믿고 따르는 것은 부모세대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구글을 통해 얻은 정보와 SNS, SMS에 연결

---

23) Pure génération Z(Blog), "Mais au final, ta génération Z, c'est quoi?", 2017. 11. 29.
http://cladelcroix.mondoblog.org/mais-au-final-ta-generation-z-cest-quoi/

된 또래 친구들의 의견이다. 또한 이들은 구글 이외에도 스카이프(2003), 페이스북(2004), 트위터(2006), 에어비앤비(2008), 델리베루(2013) 등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다. 따라서 이들 C세대의 비교세대적 특징을 우리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소셜미디어, 소셜네트워크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림 3〉 멀티태스킹이 일반화된 Z세대의 모습
출처: Céline CONTE, "Génération Z: 26 mots clés pour mieux les cerner", 2013.3.20. https://www.mafamillezen.com/

소셜미디어, 소셜네트워크의 특징은 주지하듯 오늘날 어떤 정치·역사적 사건이건 규모나 정도에 관계없이 국경을 초월해서 영향력을 미친다. 글로벌 세대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국가적 문맥 내에서 이해해왔던 세대 문제가 과거의 이론틀(특히 F. 망트레의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 있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WTC)의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에 벌어진 2001년의 9·11 사태, 2010년의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번진 아랍의 봄, 2011년의 월가 시위(Occupation Wall Street!)를 비롯해 2016-17년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촛불시위 등이 국경을 초월해 지구촌 시민들, 특히 C세대에게 영향

을 미친 대표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C세대에게 이러한 국제적 사건은 이들이 '글로벌 세대'로 성장해가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러한 사건들은 초국가적 영향을 미친 것에 그치지 않고 C세대의 '손 안에서' '글로벌 트렌드'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에드먼즈와 터너가 21세기에 세대 논의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글로벌리즘에 대한 사고를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바로 여기에 기인한 것이다. "세대와 세대 변화는 전통적으로 국가적 경계 내에서 이해되어 왔지만", 또 그 점을 우리는 앞 절의 말미(末尾)에서 언급한 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글로벌 차원에서 경험된 외상적 사건(globally experienced traumatic events)이 '글로벌 세대(global generations)'가 출현"하는데 있어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우리가 C세대를 비교세대적 관점에서 '글로벌 세대'라고 정의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부자연스럽게 느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24]

〈표 2〉의 세대 약칭에서도 이미 적시한 바 있듯, Y세대가 '최초의 글로벌 세대'라면, Z(C)세대는 '참된 글로벌 세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세대를 연구해왔던 사회학에서도 이제는 글로벌 세계의 추이와 소셜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25] 이들의 행동과 태도를 지구촌 차원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이 어느새 지론(至論)이 된 것! 이렇듯 '글로벌 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초국가적 세대(international and transnational generations)를 탄생시켰으며, 앞서도 언급했듯, 9·11 참사와 같은 '외상의 세계화(the globalization of trauma)'를 지구촌에 퍼뜨리기도 했다. 에드먼즈와 터너의 분석대로 새로운 디지털 매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

---

24) J. Edmunds & B. S. Turner, *op. cit.*, p.564. Z(C)세대는 물론이고 XY세대까지도 '글로벌 세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M. McCrindle & E. Wolfinger, *The ABC of XYZ: Understanding the Global Generations*, McCrindle Research, 2014. 참조.

25) J. Urry, "Social Networks, Travel and Talk",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4(2), 2003, pp.155-175. 참조.

구촌 어디서나 트라우마적 사건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이는 인터넷, 공간, 디지털 매체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또한 Z(C)세대가 글로벌 세대라는 것은 이들 세대가 한 곳에 정착하는 것보다 이동성(mobility)이 이미 이들의 몸에 밴 '세대유전자'라는 말과도 같다.

여기서 '이동성'은 단지 물리적인 차원에만 한정되는 의미가 아니다. 이들의 이동성은 "6-8초 세대"(〈표 2〉 참조)라는 별칭에서도 그 단적인 특징을 읽어낼 수 있다. "이들에게 30초는 곧 '영원'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26] 1960년대에 보수적 가치와 기존 사회체제를 부정하며 탄생한 히피족과 Z(C)세대를 비유하는 것도, 차원과 지향점은 비록 다를 수 있지만, 이들의 이동성 때문이다.[27] 그러니까 '디지털히피 세대'인 이들 C(Z)세대는 물건을 구매할 때도 왜 그 물건을 사야만 하는지를 기성세대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순간적 판단이나 또래 집단의 추천에 의해 돈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히피적 태도(une vraie posture hippie)"를 보인다고 마케팅 관계자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C세대는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볼 때 '예측이 불가능한 세대'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자란 환경은 기성세대도 십분 이해하지만 이들의 마음 속은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게 일반적 평가다.[28]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L. M. 트록사의 언급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운 세대가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인 것"인지 모른다.[29]

---

26) Pure génération Z(Blog), *op. cit.*

27) Marketing-Professionnel.fr, "Génération Z: les digital hippies?", 2017. 3. 31. http://www.marketing-professionnel.fr/tribune-libre/etudes-marketing-generation-z-digital-hippies-201703.html

28) A. Singh, "Challenges and Issues of Generation Z",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16(7), 2014, p.59. 참조.

29) L. M. Troksa, "The Study of Generations: A Timeless Notion within a Contemporary Context", These of University of Colorado, Spring 2016, p.87.

"만일 우리가 각 세대 내에서 표출된 차이나는 문화들(differing cultures)을 인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세대가 우리가 인식하거나 인식하기를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이름[세대명] 이 힘(power)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실제로 세대에 주어진 이름은 피상적인 이름을 초월한 힘을 가지고 있다. 세대에 깊게 파고들면 들수록 각 세대마다 고유한 진행 상황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부여될 것이다."[30]

C. 콩트의 분석이 옳다면, 이들 C세대는 "결과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고 머리와 마음이 명령하는 대로 행동하는 세대"이다 '순간-지금-현재-오늘'을 즐기는 욜로족(You Only Live Once)[31]이란 별칭을 갖는 것도 이들 세대가 표출하는 이동성이라는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의 이동성은 또한 지구촌에서 생산된 모든 정보, 지식 등이 인터넷 공간과 현실 공간을 동시에 넘나든다는 의미와도 괘를 같이 한다. C세대의 무대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구촌 전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렇듯 이들에 의해 마침내 "가상과 현실이라는 경계가 무너진 것이다."[32] 이들은 또한 가상/현실을 넘나드는 데만 그치지 않고 전통/근대성을 넘나들

---

30) *Ibid.*

31) C. Conte, "Génération Z: 26 mots clés pour mieux les cerner", 2013. 3. 20. https://www.mafamillezen.com/generation-z-26-mots-cles-pour-mieux-les-cerner/
〈Yolo〉외에도 C. 꽁트는 Z세대의 특징으로 알파벳에 빗대 25개의 비교세대적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i)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이모티콘이나 SMS(Short Message Service)로 대신하는 〈XO XO〉, ii) 방금 요청한 내용은 물론이고 일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일을 망각하는, 특정 업무에 5분 이상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심지어는 노트와 연필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야 하는 것마저도 잊는 〈Poisson Rouge(금붕어)〉, iii) 충격을 받았을 때 의미 없이 뭔가를 외쳐대는 OMG(Oh My God), iv)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불안해하는 Nomophobie(No Mobile Phobie), v) 새로운 것을 놓칠까, 친구들로부터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FOMO(Fear Of Missing Out), vi) 어플, 네트워크, 전자메일 등 적어도 4개(또는 5개)의 창을 동시에 열어놓고 작업하는 Hyperconnectés 등.

32) 이에 대해서는 J. Baudrillard, *Simulacres et Simulation*, Galilée, 1981. 참조.

기도 한다. 이슬람권의 젊은 대학생이 『코란』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페미니즘이나 하위주체를 연구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33]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건대 C세대의 비교세대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i) 디지털기술 기반의 소셜미디어, 소셜네트워크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관계로, ii) 자연스럽게 글로벌 세대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iii) 이동성이 높고, iv) 가상/현실 및 전통/근대성을 넘나드는 세대.

3. 세계화와 소비주의에 노출된 C세대의 윤리적 유전자

C세대의 글로벌 의식은 현대사회의 변화 과정, 국가적 정체성과 세계주의(cosmopolitanism)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사회학적 요체(要諦)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 "세계화 자체의 과정(the process of globalization itself)"[34]이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C세대의 글로벌 의식이 세계화와 연동되어 있다는 것은 이들의 세대의식이 아직 정치적으로 잘 조직되어 진정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단계나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에드먼즈와 터너가 "글로벌 세대의식은 글로벌 계급의식보다 더 실행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35] 역설적으로 말해 C세대가 계급이나 국적을 초월한 글로벌 의식을 소유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1960년대처럼 [아직] 적극적인 정치적 세대를 창출하는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36]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라크전쟁(2003-2011)에 대한 반대시위와 베트남

---

33) 이들 세대의 글로벌 의식과 결합된 이동성은 환경운동, 반세계화 운동, 글로벌 정치 운동 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34) *Ibid.*, p.574.

35) J. Edmunds & B. S. Turner, *op. cit.*, p.564.

36) *Ibid.*

전쟁(1965-1973)에 대한 반대시위를 예로 들어보자. 두 전쟁과 두 반대시위의 차이는 베이비부머세대와 X세대가 Y세대나 Z세대와 세대가치와 사회변화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베이비부머세대와 X세대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집단적 행동(collective action)을 마다하지 않았던 세대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희생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기꺼이 개인의 희생을 감수했으며, 이들의 행동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참여 의식'이 함께 작동되고 있었다. 반면 Y세대, Z세대는 이들의 부모세대에 의해 건설된 풍요의 세계를 누리며 단지 주어진 삶을 즐기는 세대에 가깝다. 따라서 사회정치적 의식이 부모세대에 비해 약한 편이며, 늘 사회보다 개인을 우선한다. 이들 세대는 전통과 권위를 존중하는 베이비부머세대나 X세대와 비교할 때 '반전통의 세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자신만이 전부인 세대(Me generation)'라는 게 세대연구자들의 일반적 평가다.[37]

'자신만이 전부인 세대'이기에 이들의 행동은 집단적 행동이 아니라, 설사 집단적 행동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반응(individualistic reaction)'에 불과하다. U. 베크와 E. 베크 게른스하임의 정확한 언급대로, "그 때는 집단적 행동이 있었지만, 오늘날엔 사적

---

37) '자신만이 전부'인 세대는 원래 Y세대, 즉 새천년세대를 칭하는 별호(別號)였다 - J. Stein, "Millennials: The Me Me Me Generation", *Time*, 2013. 5. 21. (http://-time.com/247/millennials.../).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세대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 세대라고 여긴다는 점에서 굳이 Y세대에게만 이 별호를 배타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글 참조: E. Reeve, "Every Every Every Generation Has Been the Me Me Me Generation", *The Atlantic*, 2013. 5. 9. (https://www.theatlantic.com/national/archive/2013/05/.../); N. Patrick, "The Baby Boomers were nicknamed the "Me Generation" due to their perceived narcissism", *The Vintage News*, 2016. 9. 5.(https://www.thevintagenews.com/); L.-P. Messier, "Ma génération me hait", *Le Journal Montréal*, Samedi, 2013. 3. 2.(https://www.journaldemontreal.com/). 그런데 Z(C)세대에게서는, 특히 Y세대와 비교할 때도, 유독 "자기중심적 개인주의(self centered individualism)"가 강하며, 그 이유를 A. 싱크는 "부모로부터 왕자나 공주로 대우받으며 자란데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A. Singh, *op. cit.*, p.60).

인 반응만이 있을 뿐이다."[38]

베이비부머세대와 X세대가 '생산과 노력의 세대'라면, Y세대와 Z세대는 감히 말해 '소비와 여가(쾌락)의 세대'라 할 수 있다. C세대를 세계화 과정과 분리해서 논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들 세대가 역설적으로 글로벌 소비주의(the global consumerism)의 중심 세력이라는 점 때문이다.

오늘날 소비주의는 지구촌 전체에 만연해 있다. 그런데 세계화론자들은 글로벌 경제 또는 로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미덕'이라는 감언이설을 유포하기에 여념이 없다. D. 벨이 일찍이 경고한 대로 반합리성이 합리성을, 반문화가 문화를, 수단이 목적을, 소비가 생산을 대신하는 시대를 '정상성'으로 평가하는 웃지 못할 시대가 된 것이다.[39] 이렇듯, 현대자본주의의 핵심 이데올로기로서 소비주의는 지구촌 전체를 신자유주의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40] 본고에서 우리가 C세대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기실은 이들 세대가 20여 년 후면 어느 국가나 할 것 없이 사회의 주요 의사결정자 및 행위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소비주동자(consomm'acteur)"[41]로 부상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스마트 소비자 세대'라고도 불리는 C세대가 물론 아직은 사회의 중심 영역에서 노동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놓고 보더라도 32%로 매우 높고", 소비지출도 OC&C에 따르면 연간 약 34조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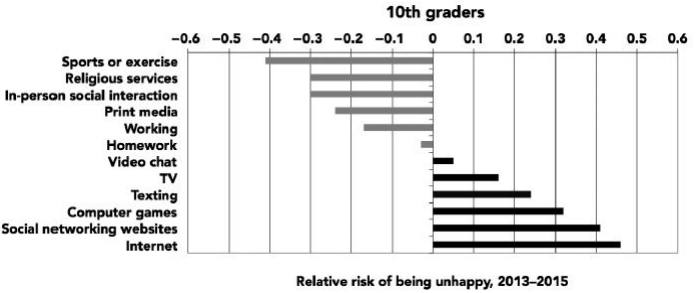
38) U. Beck and E. Beck-Gernsheim, "Global generations and the trap of methodological nationalism for a cosmopolitan turn in the sociology of youth and gener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5(1), 2009, p.34.

39) D. Bell,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Vol. 6, No. 1-2, 1972, p.11-38. 참조.

40) N. Harmanci, "Consumerism is the Core Ideology of the Capit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Humanities and Technology*, Vol. 7, No. 4, 2017, p.61-66.; D. Kumar, "Consumerism and its effects on globa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ectual Advancements and Research in Engineering Computations*, Vol. 5, Issue 2, p.2061-2068. 참조.

41) R. Morin, "Génération C: Le choc des générations", 2013. 4. 26.(http://raymondmorin.com /2013/04/26/generation-c-le-choc-des-generations/) 참조.

(3400 milliards des dollars)에 이른 것[42]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림 4〉 C세대는 어디서 행복을 찾는가?
출처: http://lbclinic.org/wp-content/uploads/2018/01/Teen-MH-LB.pdf

재삼 강조하지만, 전 세계가 C세대에 주목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43] "미래의 성년(futurs adultes)"[44]인 이들의 세대코드와 문화에 대한 성찰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도 이 때문인지 모른다. 그렇다. 코스튼은 바로 이들 C세대의 등장을 염두에 두고서 "새로운 대안적 정체성"이란 화두를 제시했던 것이며, 슈츠도 같은 맥락에서 C세대는 전통의 세대론에서처럼 단지 연령대만으로 파악되지 않은 "유일무이한 세대(a unique and very different generation)"[45]라고 했으며, A. 싱크는 "전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

42) E. Hu, "Les 6 clés pour comprendre la génération Z", *Business Insider France*, le 28 jan. 2019 - https://www.businessinsider.fr/6-cles-pour-com prendre-la-generation-z /.

43) 물론 C세대가 아직 소비를 통해 자신의 욕구는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삼포세대', '헬조선'과 관련한 담론과 함께 널리 회자되기도 했고, 일본에서는 '사토리 세대'로, 유럽에서는 '1000유로 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44) Cabinet UpMyBiz, "Cap sur la génération Z: ses caractéristiques et habitudes de consommation"
(https://www.upmybiz.com/cap-sur-la-generation-z-ses.../)

45) C. Scholz, "Karl Mannheim on Generation Z", 2018. 11. 8.
(https://the- generation-z.com/karl-mannheim-on-generation-z).

사유(a whole new way of thinking)"[46]가 요구되는 세대라 평가했다.

따라서 C세대를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재단하려는 태도도 지양해야 하겠지만, 이들 세대에게 4C세대(Connection, Communication, Creation, Collaboration)라는 장비빛 영명(榮名)을 부여하는 것도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47] C세대를 4C세대라고 과대포장하는 경제기술세계화론자들의 수사학에 우리가 더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C세대의 비교세대적 차지 중 하나로 디지털기술 기반의 소셜미디어, 소셜네트워크라는 특징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시대의 이와 같은 역운(歷運)으로 인해 C세대는 디지털 기술을 마치 '산소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완벽하게 연결된 24시간/7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현실로부터 이들 세대의 생활양식, 소통방식, 직업윤리, 노동가치, 소비행태 등이 결정된다는 것은 더 이상 부연이 필요치 않을 것이며, 〈그림 4〉에서 재삼 확인 할 수 있듯, 이들 세대의 '행복'은 모두 〈컴퓨터-인터넷-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들 세대가 '인터넷 이전 시대(the pre-internet era)'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충분히 추론 가능하다. 그런데 이들이 디지털기술에 익숙한 세대라는 것은 이들에게 디지털기술은 더 이상 흥미로운 대상이 아니란 뜻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A. 싱크가 이들의 비교세대적 특징으로 '디지털 기술을 넘어서는 것(beyond technology)'에 주목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경제도 기술도 '윤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

46) A. Singh, *op. cit.*, p.61.

47) R. Giry, "A la découverte de la génération 4C", *Focus RH – Gestion de carrière et évolution professionnelle*, le 4 avril 2016 참조. R. 지리는 자신의 글에서 C세대를 4C세대(Connection, Communication, Creation, Collaboration)라 정의하고 있다. 본고의 각주7)에서도 이미 밝혔듯, 4C세대를 이렇게 연구목적에 따라 달리 정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머리글자 'C'에 지나치게 경도된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A. 싱크는 C세대의 특징으로 〈Freedom, Unconventional, Materialism, Global, Professional Commitment, Experimental, Beyond Technology〉를 들고 있다는 점도 기억했으면 한다.

아는 일이다. 다행히 C세대의 유전자 속에는 부당하고 불평등하며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유전자가 잠재돼 있다고 전하는 보고서들이 적지 않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게 될 이들 신세대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들의 이와 같은 '윤리적 유전자'이다. Y세대가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그쳤다면, Z세대는 몸으로 이미 벌써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 두 세대의 차이이다.[48] 우리가 이들 Z(C)세대에 대해 '비관하기'만으로 일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 모든 세대를 위한 미래, 모든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들의 윤리의식, 창조 정신, 자유 정신에 희망을 걸어보자는 것이다.

물론 이들 세대의 행동에 무모한 측면도 없지 않고 인내력이 약한 것도 사실이라지만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류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것도 이들 세대의 강점이라면 강점이다. 변화, 혁신은 시행착오, 오류가 밑거름이라 하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Z(C)세대는 분명 기성세대와는 다른 사회문화적 지평 위에서 자신들의 삶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들에게 행복은 더 이상 도착지에 있지 않다. 이들이 원하는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49] 그래서 기성세대는 바로 '지금-여기'에서 이들의 윤리적 유전자, 정의와 공정의 유전자, 창조와 자유의 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에 에너지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들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도 말이다!

---

48)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한 C세대에 관한 종합적 연구는 C. Combi, *Generation Z: Their Voices, Their Lives*, London: Hutchinson, 2015. 참조.

49) A. Chabal, "Pour comprendre la génération Z, il faut repartir de la base: La Famille", *Forbes*, 2018. 1. 29. (https://www.forbes.fr/).

III. 배타적 세대주의 극복과 상호세대적 관계의 정초

'자기만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Z(C)세대에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걸어보는 것은 바로 이들 세대에게 '우리(We)'에 대한 유전자가 잠재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공감, 타인에 대한 신뢰, 시민적 지향, 타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는" 태도가 이들 신세대에게서 비교세대적 특징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따라서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들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J. M. 트웬지의 예측대로, 향후 "우리 세대(generation We)"로 진화해간다면, 이제까지 고민했던 고민했던 세대갈등, 세대격차 문제는 한 순간에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본다.[50]

'우리'에 대한 유전자가 널리 발현돼 세대 간의 '공감'과 '연대감'이 확장되고, '우리 세대'가 앞당겨 실현되면, 세대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주범인 배타적 세대주의는 우리가 염려 염려했던 것보다 빠르게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51] 이렇게 세대 간의 배타성, 격차, 갈등이 만일 '우리'가 모수(母數)가 되어 재편된다면 가족, 사회, 국가는 개인 위에서 더 이상 억압기제로 작용하지 않고 반대로 개인의 자기 실현, 자기표현을 위한 무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특정 개인'만이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우리 세대'의 중

---

50) J. M. Twenge, "The Evidence for Generation Me and Against Generation We", *Emerging Adulthood*, 1(1), 2013, p.15.

51) 세대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D. P. Costanza & L. M. Finklestein, "Generationally based differences in the workplace: Is there a *there* there?",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 2015, pp. 308-323. 참조. 이들에 따르면 세대주의는 기본적으로 세대 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이 부재한다는데 비판의 요지가 있다. 세대 간의 차이(generational differences)를 전제한 세대주의는 i) 세대 간의 차이를 최소한의 경험적 증거(minimal empirical evidence)에 기반하고 있으며, ii) 이를 토대로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에, iii) 왜 세대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건전한 설명(sound explanation)이 불가능하고, iv) 결과적으로 그러한 세대 간의 차이를 다루기 위해 고안된 중재의 효과에 대한 버팀목(support)이 없다.

심 세력인 Z(C)세대의 자각과 이를 지지하는 다른 세대의 관심이 증폭될 때 "공동체의 '이상'"은 '현실'이 될 것이란 뜻이다.

본론에서 Z(C)세대의 특징을 살펴보면서도 이미 확인했듯, 2000년을 전후해 세대론의 지형도가 달라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 원주민 세대'가 글로벌 세대, 탈경계의 세대, 이동성이 높은 세대로 성장하면서 국가적 문맥 내에서 논의되었던 세대 문제가 초국가적 차원의 영향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두 번째 변화는, 첫 번째 변화와 직접 연결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들 신세대에게 있어서는 정부나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현격히 낮다는 점이다. 이들 세대는 '사회 변화'보다 '자기계발'에 우선 가치가 있다고나 할까. 이는, 〈그림 2〉에서도 이미 확인한 바 있듯, 2000년 이후부터는 세대를 불문하고 물질(돈)적 가치가 삶의 가치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물질적 가치가 전 세대적으로 제일 가치가 되었다는 것은 곧 공동체를 위한 연대의식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필자가 참여한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도 20대에서 50-60대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의식이 종합 5위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2] 공동체 의식의 약화 현상은 단지 한국에서만 나타난 특이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전반적 경향성'이다. 이렇게 전통적인 가족 및 사회의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은 향후 국가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처럼 세계경제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불안감과 계층·세대 간에 불균형·불평등이 가속화면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물질적 가치, 소득, 돈에 집착하게 될 것이다. 요즘처럼 신자유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사회경제적 부정의가 정의의 탈을 쓰고 활개를 치는 한,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격차는 '세대

52) 박치완, 「한국인의 문화유전자, 그 연속성과 단절의 변화 추이 탐색」, 『인문학논총』 제34집,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307-341쪽 참조. 참고로 20-30대 한국인의 문화유전자 순위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① 조화·어울림 → ② 신명·흥 → ③ 정·사랑 → ④ 열정·도전 → ⑤ 공동체문화 순이다(자세한 설명은 위의 글, 325-333쪽. 참조).

전쟁'(R. Chin)으로 애화(哀話)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53]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이 지구촌에 평등한 시민사회가 구현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지구촌에 평등한 시민사회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면, 모든 국가, 모든 세대가 나서서 '우리'에 대한 공감과 연대감을 키워야 한다. 트웬지의 '우리 세대' 개념이 시사하는 바가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세대'는 '영영 오지 않을 미래의 세대상'이 아니라 '지금-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세대상이다. '세대'라는 개념 자체 내에 이미 '나-우리'는 병존(竝存)한다. 더 정확히는 인간-존재란 "개인으로서는 혼자(alone)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집단의 일부(part of a 'We', a collective flow)이다." 세대를 논할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공존에 대한 자각(awareness of co-existence)"일 것이다.[54] 공존을 위해서는, 21세기적 문법으로 이를 풀이하면, 경제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가 실현되면, 사회정의는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사회정의가 실천된 곳에서 개인, 가족, 국가는 어떻게 더 양질의 사회를 경영할 것인지 꿈을 교환하며 연대의식을 고양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문화가' 정착된 곳에 서라면, 세대는 오늘날과 같이 결코 사회불안,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세대주의의 울타리를 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현실은, 주지하듯, 사유화(privatization), 소비주의(consumerism)로 치달리고 있다. 물질, 경제, 기술에 편향된 소비자본주의의 확장이 문제다. 소비자본주의적 문화는 '우리 세대'가 '공존의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있어 결정적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감히 말하지만, 현대의 소비자본주의적 문화는 '문화'의 본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문화는, 더 정확히 말해 '정신문화'는 개인, 지역, 사회, 국가를 초월해서 인류

---

53) R. Chin, "Are We On the Road to a Generational War?", *Next Avenue*, 2014. 4. 17. (https://www.nextavenue.org/are-we-road-generational-war/).

54) J. Burnett, *Generations: The Time Machine in Theory and Practice*, Routledge, 2016, p.124.

가 보존하고(문화유산) 고양해야(로컬 정신문화) 할 공공재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를 인류의 공공재로 여길까?[55] 우리의 기대와 달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화를 시장재, 자본재, 사유재로 여긴다. 필자의 판단에 따르면, 문화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인류의 공공재로서 문화 함양을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시장-자본문화의 확대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문화산업이라는 것이다.

H. 아렌트는 일찍이 「문화의 위기」라는 글에서 현대사회는 "문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락(loisirs)을 원한다"[56]고 비판한 적이 있다. 같은 글에서 필자의 시선을 멈추게 한 또 다른 문장 하나 이 자리에서 소개해볼까 한다: 만일 문화를 "사용가치로만 판단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눈을 뽑아버려야 할 것이다."[57] '문화산업'이 혹여 '문화'를 호모 파베르의 '제작물(cultural objet)' 쯤으로 여기며 자본가(문화콘텐츠산업투자자)에게 이익을 되돌려주기 위해 "공중(公衆)과 격리되어야 하고, 공중을 피하고, 공중으로부터 은폐되어야만 한다"[58]면,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 문화가 반문화(contre culture)의 길로 접어든 것이라는 증표가 아니겠는가.

"역사를 무시하는 세대는 과거도 미래도 없다"(R. Heinlein)고 했다. 같은 논리로 정신문화가 실종된 사회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알파 세대(generation Alpha)를 손자손녀로 또는 증손자증손녀로 두고 있는 전통세대, 베이비부머세대가 고민해야 하는 것도 바

---

55) 이에 대해서는 박치완, 「공공재로서 문화와 문화공공성의 가치 재고」, 『인문콘텐츠』 제48호, 2018. 참조.

56) 한나 아렌트, 『과거와 미래 사이』, 서유경 옮김, 푸른숲, 2005, 266-302쪽 참조.

57) 위의 글, 281쪽. 아렌트가 이렇게까지 역정을 내며 문화의 물신화 및 세속화 경향, 즉 상업화 일변도의 문화 이해에 대한 비판을 주저리주저리 부연해야 하겠는가. 중요한 것은 오늘날 문화가 자본에 먹이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렌트가 이렇게 역정을 낼 정도로 문화 자체가 파괴되어가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58) 위의 글, 290-291쪽.

로 이점이라 생각된다. 후속(후손) 세대가 더 자유롭고, 더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의 조성을 위해 전통세대, 베이비부머세대는 이제 스스로의 (세대)위치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되돌아볼 때가 되었다. 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경제사회적 기득권을 미래세대를 위해 양보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것이다.

〈그림 5〉 상호세대의 행복
출처: R. Ryback, “From Baby Boomers to Generation Z: The generational gaps and their roles in society”, Psychology Today, feb. 22, 2016.

인류의 공공재로서 문화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것은 전통세대, 베이비부머세대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XYZ세대는 이제 비판의 화살을 자신이 소속된 세대 밖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XYZ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의 이상 실현을 위해 각기 잠재된 ‘우리-유전자’를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만 할 때가 되었다. 앞서 ‘우리-유전자’는 Z-C세대에게만 잠재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존재의 본질이라 부연했다. 각 세대가 상대 세대에 대한 학습을 통해 상호세대적 이타주의를 ‘우리’를 모수로 실현할 때 공존의 공동체 건설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59]

세대갈등, 세대격차는 어느 사회나, 언제나 존재했고, 여전히 오늘날

에도 존재하고 있다. 일찍이 플라톤도 “그의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격차가 있음을 상기하면서, 이 격차는 [허나] 새로운 개념도 아니며 그리스 공화국의 진보를 방해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60] 단적으로 말해, 세대 간의 차이나 격차 자체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즉 중요한 것은 세대 간의 실제적 차이,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를 상호 인정하고 상호세대적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상호세대적 관계의 회복은 ‘상호세대(intergeneration)’에서 〈inter〉, 즉 ‘사이’에서 인간적 상호관계를 회복하는 일과 직결돼 있다.[61] 인간적 상호관계가 회복할 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경제제일주의로 인해 붕괴된 인간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가 마침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세대연구는, 본 논문에서 지면 관계상 다루지는 못했지만, 상호세대적 정의(윤리)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새로운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란 제안과 함께 이 글을 마칠까 한다.[62]

---

59) 관련 국내 연구로는 함인희, 「세대갈등을 넘어 세대공존을 향해」, 『계간사상』 제44권, 2000. 참조.

60) L. M. Troksa, *op. cit.*, p.87. 재인용.

61) M. Sanchez et al., “Intergenerational programmes: Towards a society for all ages”, *Journal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6(4), 2008, pp.485-487. 참조.

62) 관련해서는 다음 글 참조: A. Gossseries, “On future generations’ future rights”,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No. 16, 2008; M. Kates, “Justice, democracy, and future generations”, *CRISPP*, No. 18, 2015; C. Unruh, “Present Rights for Future Generations”, *Journal of Philosophy*, Vol. 30, No. 3, 2016; E. Partridge(ed), *Responsibilities to future generations: Environmental ethics*, New York: Prometheus Books, 1981; R. Kuma(ed.), *Ethics and Future Generations*, Routledge, 2018.

참고문헌

김정훈, 심나리, 김항기, 『386 세대유감』, 웅진지식하우스, 2019.
동아비즈니스리뷰, "Gen Z", 『DBR』, No. 269, Issue 2, 2019.
만하임(K.), 『세대 문제』, 이남석 옮김, 책세상, 2013.
맥루한(M.), 파워스(B. R.), 『지구촌』, 박기순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박치완, 「한국인의 문화유전자, 그 연속성과 단절의 변화 추이 탐색」, 『인문학논총』 제34집,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_____, 「Y세대의 타자관과 기술문화의 소비」, 『2018 글로문화콘텐츠학회 추계학술대회보』, 2018.
_____, 「공공재로서 문화와 문화공공성의 가치 재고」, 『인문콘텐츠』 제48호, 2018.
_____, 「문화콘텐츠기획과 세대론」, 『인문콘텐츠』 제53호, 2019.
아렌트(H.), 『과거와 미래 사이』, 서유경 옮김, 푸른숲, 2005.
전상진,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한국사회학』 제36집, 2004.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결과 창의의 아이콘, C제너레이션』(n·content, Vol. 2 특집호), 2017.
함인희, 「세대갈등을 넘어 세대공존을 향해」, 『계간사상』 제44권, 2000.

Attias-Donfut, C., "La notion de génération: Usages sociaux et concept sociologique", *L'Homme et la société*, N. 90, 1988.
Baudrillard, J., *Simulacres et Simulation,* Galilée, 1981.
Beck, U. and E. Beck-Gernsheim, "Global generations and the trap of methodological nationalism for a cosmopolitan turn in the sociology of youth and gener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5(1), 2009.
Bell, D.,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Vol. 6, No. 1-2, 1972.

Bourdieu, P., "The social Space and the Genesis of Groups", *Theory and Society*, Vol. 14, No. 6, 1985.

_____, "'Youth' Is Just a Word", *Sociology in Question*, London: Sage, 1990.

_____,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Essays on Art and Literature*, Cambridge: Polity Press, 1993.

Burnett, J., *Generations: The Time Machine in Theory and Practice*, Routledge, 2016.

Chabal, A., "Pour comprendre la génération Z, il faut repartir de la base: La Famille", *Forbes*, le 29 jan. 2018 - https://www.forbes.fr/.

Chauvel, L., *Le destin des generations*, PUF, 2010[1998].

Codrington, G., "Detailed Introduction to Generational Theory", *Tomorrow-today*, July 2008 - www.tomorrowtoday.uk.com.

Combi, C., *Generation Z: Their Voices, Their Lives,* London: Hutchinson, 2015.

Costanza, D. P. & Finklestein, L. M., "Generationally based differences in the workplace: Is there a *there* there?",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 2015.

Conte, C., "Génération Z: 26 mots clés pour mieux les cerner", le 20 mars 2013-https://www.mafamillezen.com/generation-z-26-mots-cles-pour-mieux-les-cerner/.

Corsten, M., "The Time of Generations", *Time & Society*, Vol. 8, No. 2, 1999.

Edmunds, J. & B. S. Turner, "Global generations: social change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6(4), 2005.

Fields, A. B. & C. Weill, "Aper us du problème des générations: Mentré, Ortega et Mannheim", *L'Homme et la société*, No. 111-112, 1994.

Giry, R., "A la découverte de la génération 4C", *Focus RH – Gestion de carrière et évolution professionnelle*, le 4 avril 2016.

Gossseries, A., "On future generations' future rights",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No. 16, 2008.

Hamon, H. & R. Rottman, *Génération. Les Années de Rêve*, Seuil, 1984.

Hardey, M., "Generation C: Content, Creation, Connections and Choic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 Research*, 53(6). 2011.

Harmanci, N., "Consumerism is the Core Ideology of the Capit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Humanities and Technology*, Vol. 7, No. 4, 2017.

Löwy, M. et N. Perivolaropoulou, "Notes sur la réception de Mannheim en France", *L'Homme et la société*, No. 140–141, 2001.

Malafeev, A., "Pourquoi la Génération Y est insatisfaite et malheureuse?", le 13/11/2018 – https://www.newpointdeview.com/ mag/view/.

McCrindle, M. & E. Wolfinger, *The ABC of XYZ: Understanding the Global Generations*, McCrindle Research, 2014.

Mentré, F., *Les Générations sociales*, Paris: Bossard, 1920.

Morin, R., "Génération C: Le choc des générations", le 26 avril 2013 (http://raymondmorin.com/2013/04/26/generation–c–le–choc–des–generations/.

Purhonen, S., "Generations on paper: Bourdieu and the critique of 'generationalism'", *Social Science Information*, Vol. 55(1), 2016.

Reeve, E., "Every Every Every Generation Has Been the Me Me Me Generation", *The Atlantic*, May 9, 2013 – https://www.the–atlantic.com/national/archive/2013/05/.../.

Sanchez, M. et al., "Intergenerational programmes: Towards a society for all ages", *Journal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6(4), 2008.

Scholz, C., “Karl Mannheim on Generation Z”, November 8, 2018(https://the-generation-z.com/karl-mannheim-on-generation- z).

Sikora, R. and B. Barry(eds.), *Obligations to Future Generations,* Temple University Press, 1978.

Singh, A., “Challenges and Issues of Generation Z”,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16(7), 2014.

Stein, J., “Millennials: The Me Me Me Generation”, *Time,* May 21, 2013 - http://time.com/247/millennials.../.

Twenge, J. M., “The Evidence for Generation Me and Against Generation We”, *Emerging Adulthood*, 1(1), 2013.

Unruh, C., “Present Rights for Future Generations”, *Journal of Philosophy*, Vol. 30, No. 3, 2016.

Urry, J., “Social Networks, Travel and Talk”,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4(2), 2003.

Kuma, R(ed.), *Ethics and Future Generations*, Routledge, 2018.

〈ABSTRACT〉

Renaissance of Generationalism and Understanding Towards 'The Digital Primeval'

Park, Tchi-Wan

Seriousness of conflicts among different generations became not a surprising news in the world. The issue of the poverty of the elderly in aging society cannot be dealt without direct connection to the other citizen's welfare. As K. Mannheim stressed early, the problem of generation is not only a kind of 'social change' but also the key concept to understand societies in this very world. This is why we came up to 'Renaissance' of the generation studies.

It is the time that The Generation Z(also as called 'C'), who were born around the year of 2000, has been marching into the center of the society. 'The Digital Primeval' thinks and acts differently and shows very peculiar work's ethics and political opinions. Thus this study will first compare The Generation Z(C) with other generations: Traditionalists, Baby Boomers, Gen Xers, Gen Yers(Millennials), focus on how we can overcome chauvinism of the generationalism and finally suggest how we can begin intergenerational relation.

Key Words : Generation Studies, Digital Natives, Generationalism, Intergenerational Relation, Karl Mannheim